'제12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참가보고서'

개요

지난 2008년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주최국 일본의 미에현 이세시에서 제12회 일한중건축사협의회[1]가 개최되었다. 1997년 1월에 대한건축사협회(KIRA)와 일본건축사회연합회(JFABEA) 그리고 중국전국주책건축사관리위원회(中國注冊建築師管理委員會/NABAR)가 교류협정을 체결한 이래로 매년 주최국을 바꿔가면서 12회에 이르게 되었으며, 시장개방에 대비한 건축사 자격의 상호인정과 각국의 건축계 주요 관심사를 아시아의 주요 3개국이 논의하는 자리이다.

4일간의 일정은, 첫째 날 오후에 각국의 대표단이 도착하여 환영만찬을 가졌고, 둘째 날은 회의 안건에 따라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셋째 날은 주최국에서 준비한 일정에 따라 건축시찰을 하고 저녁에 환송만찬이 있었으며 마지막 날인 넷째 날 오전에 귀국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각국의 대표단은 다음과 같다.

• **일본건축사회연합회** : Fujimoto Masaya(회장), Watanabe Sadao(이사, 국제위원장), Yamanaka Yasunori(전무이사), Yamaki Akira(국제위원), Sakurai Yasuyuki(국제위원), Yanagawa Harufumi(국제위원), Goto Toshiyuki(국제위원), Kawamura Mitsuru(국제위원)

• **대한건축사협회** : 한명수(회장), 김만성(고문), 오운동(고문), 김규태(고문), 김영수(고문), 이세훈(고문), 이철호(고문), 김성민(국제위원회 위원), 김정주(제공건축 대표), 김은경(사무국), 김률희(통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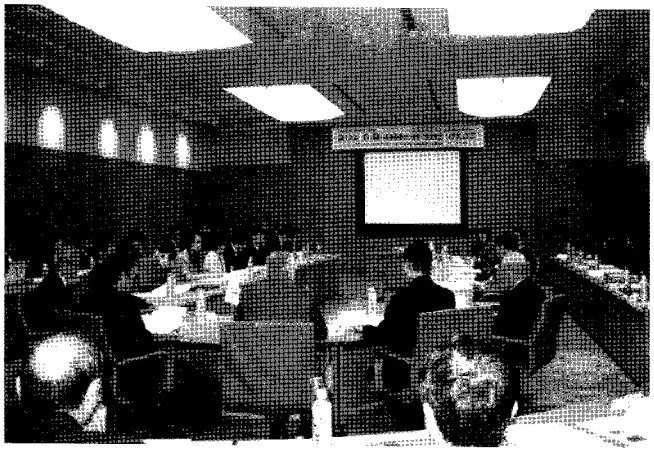
• **중국전국주책건축사관리위원회** : Wang Suqing(회장), Tao Jianming(도시농촌주택건설부 실무자격센타 부회장), Chen Bo(도시농촌주택건설부 건축시장관리과 소장), Wan Bin(도시농촌주택건설부 실무자격센타 소장), Liu Fengqun(도시농촌주택건설부 인사과 직원), Jiang Qingjun(요령성실무자격센타 회장), Zhang Jie(칭화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Cai Chen(도시농촌주택건설부 실무자격센타 직원/통역), Zheng Fang(중국국제설계고문유한회사 총괄건축사)

회의내용

11월 18일의 회의는 이세시의 컨벤션센터인 SUN ARENA에서 열렸으며, 회의 안건은 오전에 'APEC 건축사의 각국 현황'과 '국제적인 실무를 위한 핸드북'을 각국이 발표하고 토론하며, 오후에는 주최국이 정한 주제에 맞는 각국의 건축사가 자신의 작품을

대한건축사협회 대표단

1) 협의회의 명칭은 당해년도 개최국가명을 맨 앞에 둠.



회의장 전경

을 발표하는 자리로서 첫 번째 주제는 '역사 관광자원을 가진 도시, 지역의 재생' 이며 각국의 젊은 건축사가 발표하는 두 번째 주제는 '지속가능한 건축' 이었다.

APEC 건축사의 각국 현황

한중일 건축사의 상호 교류 및 자격 상호인정을 위하여 한중일 3국은 APEC건축사 제도를 활용하여 상호인정의 토대를 삼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APEC건축사에 대한 각국의 상황 및 대응을 발표하고 토의하여 최종적으로 3국의 상호인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과 호주 간에 체결된 상호협정에 대하여 일본 측의 설명을 듣고 상호인정의 가능성과 APEC건축사에 대한 각국의 현황을 발표하고 토의하기로 하였다.

가) 일본

일본은 최근(2008년 7월 1일)에 체결된 '일본-호주간 APEC건축사 상호협정(APEC ARCHITECT BI-LATERAL AGREEMENT BETWEEN AUSTRALIA AND JAPAN)' 의 내용을 소개하여 한중일 APEC건축사 상호인정에 도움이 되고자 (재)건축기술교육보급센터의 Mori Masashi씨가 직접 설명하였다.

상호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과 호주는 2005년 12월에 기본협정(BASIC AGREEMENT)을 체결한 이래로 2006년 5월에 첫 대면을 하였고 2007년 1월의 두 번째 회의에서 협정서 초안을 협의하였으며 2008년 7월에 협정서를 체결하고 상호인정시험(DOMAIN SPECIFIC TEST)의 응시서류를 받기 시작하였다.

협정서의 서명은 호주 측은 호주건축사인증원(ARCHITECTS ACCREDITATION COUNCIL OF AUSTRALIA)과 호주APEC건축사감독위원회(THE AUSTRALIAN APEC ARCHITECT MONITORING COMMITTEE)가 하였으며 일본 측은 일본국토교통성(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JAPAN)과 일본APEC건축사감독위원회(THE JAPAN APEC ARCHITECT MONITORING COMMITTEE)가 하였다.

협정서의 내용은 정의, 목적, 상호인정, 이행, 규정과 효력, 입국 및 비자, 정보교류, 전문가협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PEC건축사 상호인정의 최대 관심사항인 상호인정시험은 호주에서는 호주건축사인증원에서 'SUPPLEMENTARY ASSESSMENT PROCESS' 란 명칭으로 호주의 시드니 또는 퍼스에서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일본은 일본APEC건축사감독위원회의 주관으로 DOMAIN SPECIFIC TEST란 명칭으로 도쿄에서 연4회 실시하기로 하였다. 시험 방법은 호주는 영어 인터뷰를, 일본은 영어와 일본어로 병기된 문제에 대한 논술(WRITING ESSAY)로 정하였다.

일본은 현재 1급 건축사(1ST-CLASS KENCHIKUSHI)중에서 신청을 받아 등록기준에 맞는 411명의 APEC건축사를 배출하였다.

나) 한국

한국은 2005년 APEC중앙이사회에 대한건축사협회가 참석하여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06년 제1차 대한민국 APEC ARCHITECT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06년 5월에 'APEC ARCHITECT 등록 신청공고 및 AAP제도 안내' 를 여러 매체를 통하여 게재하였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절차를 거쳐 2007년 5월에 261명에게 제1회 APEC ARCHITECT 등록증 수여식을 가졌다.

이후 2008년 8월에 캐나다 벤쿠버에서 개최된 제3회 APEC 중앙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APEC건축사 제도에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고 있다.

발표는 대한건축사협회의 김성민 국제위원회 위원(필자)이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다) 중국

중국은 중국APEC건축사감독위원회를 2005년에 설립하여 2008년 8월에 캐나다에서 개최된 APEC중앙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한중일 건축사 상호인정 및 국제교류에 협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APEC건축사감독위원회의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교류를 증진시키고, 사무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며, 중국 APEC건축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면허접수, 승인, 등록, 발부 및 수수료 등 제반사항의 규정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APEC총회의 요청에 따라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중국의 APEC건축사에 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 개발국으로서 중국이 국제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APEC건축사 제도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둘째, APEC건축사 제도는 국제적인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건축사 상호인정의 최저기준을 제시하지만 각국의 건축사 자격기준이 상이하므로 결과적으로 건축사 상호인정은 상대국과의 상호교섭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현재까지는 한중일의 건축사가 상대국에서 실무를 하려면 상호인정이 되거나, 자격시험에 통과하거나 또는 현지 건축사사무소와 협업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만약 이런 상대국의 조건하에서 실무를 쌓은 건축사가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면 독립적으로 실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는 상호인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수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상기의 내용은 중국전국주책건축사관리위원회의 Wang Suqing 회장이 발표하였다.

국제적인 실무를 위한 핸드북

2007년 서울에서 개최한 제11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에서 일본 측이 제안한 안건으로서 앞으로 3국의 건축사가 상대국에서 실무를 할 때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핸드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에는 각국에서 건축설계실무에서의 업무절차, 건축설계 대가기준, 설계업무세부지침, 표준계약서 등과 그 근거조항,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준비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가) 일본

일본은 핸드북 제작의 목표를 3국 건축사의 건축 활동을 지원하고 상이한 실무환경에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보고 핸드북의 틀을 3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업무절차와 건물용도에 따른 업무범위(BUSINESS FLOW AND SERVICES IN RELATION TO BUILDING TYPES), 둘째는 계약(CONTRACT)으로서 세부적으로는 건축사와 건축주의 표준계약(STANDARD ARCHITECT AND CLIENT CONTRACT), 기타 계약(OTHER TYPES OF CONTRACT) 그리고 협력업체계약(DESIGN CONSULTANT CONTRACT)이 있으며 셋째는 품질관리(QUALITY CONTROL)로서 감리(CONTRACT ADMINISTRATION)와 시방서(SPECIFICATION)가 있다.

상기의 내용에 대한 정리를 시간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여, 2008년 가을(일본)에서 2009년 봄까지는 '업무절차와 건물용도에 따른 업무범위'를, 2009년 가을(중국)부터 2010년 봄까지는 '계약'을, 2010년 가을(한국)부터 2011년 봄까지는 '품질관리'를 협의하고, 2011년 가을(일본)에 최종 편집을 하기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업무절차와 건물용도에 따른 업무범위'를 1979년 일본 건설교통성에서 공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일본건축사연합회의 Sakurai Yasuyuki 국제위원이 발표하였다.

나) 중국

중국의 설계업무는 3단계로서 기본설계(SCHEMATIC DESIGN), 중간설계(DESIGN DEVELOPMENT) 그리고 실시설계(CONSTRUCTION DOCUMENTATION)로 구성된다.

경우에 따라 기본설계 이전에 개념설계(CONCEPT DESIGN)가 수행되기도 하고, 공사기간에는 감리(SITE SUPERVISION)업무가 있다.

기본설계에 있어서 모든 정부발주 또는 공공기금발주 프로젝트는 현상설계를 통하여 건축가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해외 유명 건축사를 초청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하기도 한다. 기본설계가 종료되면 건축주가 해당 인허가기관에 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중간설계에서는 건축물의 재료, 구조, 설비, 공사비 등 기술적인 사항에 중점을 두며 정부발주 프로젝트는 중간설계 도서에 대하여 구조, 소방, 공사비에 대하여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실시설계에서 도서가 관련 법규와 기준을 만족시키는지를 지정된 기관이 확인하도록 되어있으며 에너지절감 디테일이 첨부되어야 준공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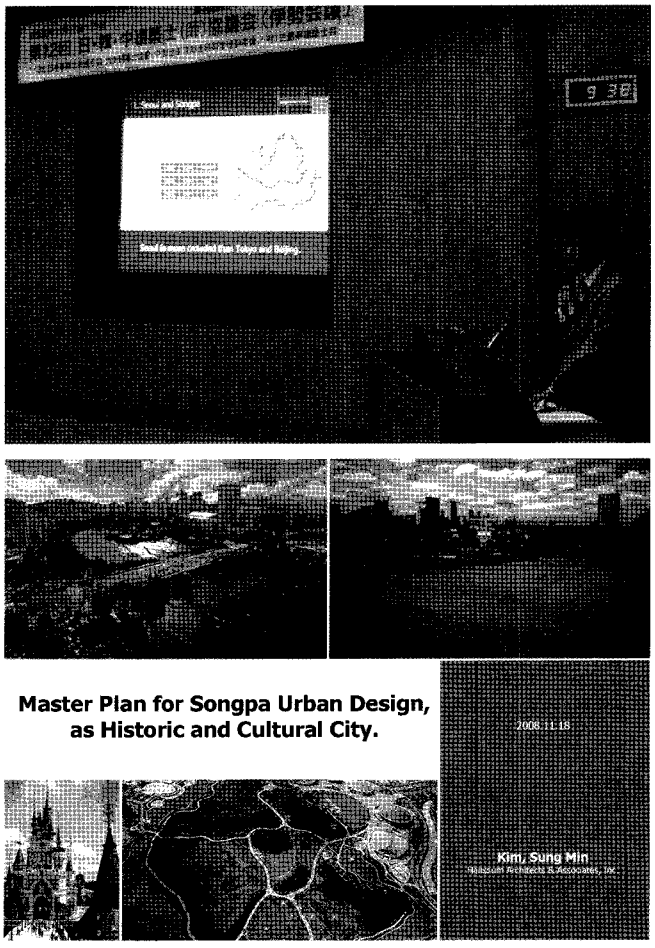
이밖에 건축설계대가기준, 설계업무세부지침, 표준계약서 등의 근거에 대하여 도시농촌주택건설부 실무자격센터의 Tao Jianming부 회장이 발표하였다.

역사 관광자원을 가진 도시, 지역의 재생

한중일 3국에는 많은 역사관광자원이 있으며 "유산을 소중히 여길 뿐 만 아니라 그 주변을 재생하여 관광도시로 활력을 주는" 좋은 사례인 이세시의 이세신궁과 오카게 요코초에 대하여 일본에서 발표하기로 하고 이와 유사한 주제에 대하여 발표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가) 일본 – '이세시의 재생'

일본에서 가장 경외시 되는 역사유산으로 1300년 전에 세워진 이세신궁은 역사적으로 많은 참배객이 방문하여 이세신궁 주변은 이세시의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1979년에 주민들이 '도시재생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2005년을 목표로 1989년부터 주민, 기업, 행정기관, 건축전문가 등이 전면적인 도시재생에 참여하여 현재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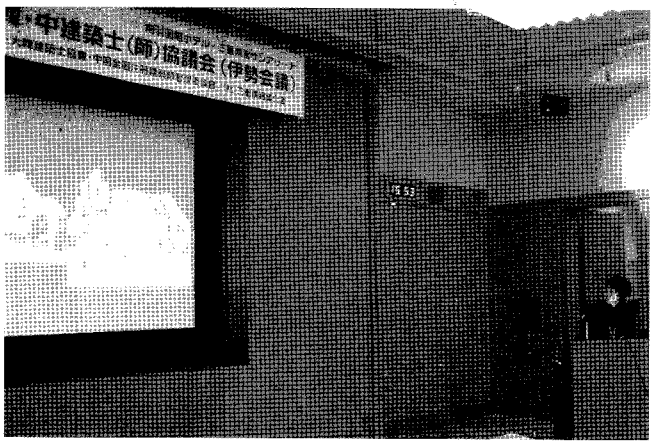
김성민 위원(필자) 발표모습 및 발표자료

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활기 있는 도시가 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근간이 된 '나이구 오하라이마치 도시보전서비스 기준' 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건물의 외부는 이 기준을 따르고 내부도 외벽에서 3.6m까지는 외부로 간주한다.
2) 3층 이내로 제한한다.(지하층은 제외)
3) 목조이며 특정 양식을 따른다.
4) 1층에는 처마가 있어야 하며 기존 건물의 높이에 따른다.
5) 도로측의 외벽은 기존 건물선에 맞춘다.
6) 지붕과 처마는 회색조의 일본식 기와를 적용한다.
7) 외벽의 1층은 특정 양식의 판벽과 목제 처마를, 2층에도 특정 양식의 발코니 난간을 설치한다.
8) 도로에 면한 모든 설치물은 목제로 하며 2층의 창호는 격자로 덮는다.
9) 건물의 색상은 주변과 어울리도록 한다.
10) 에어컨 실외기, 간판의 색상과 크기 등이 주변 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11)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건물은 향후 리노베이션 할 때 이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12) 이 기준을 따르기 어려울 경우 이세시 보전위원회에 문의하여 지침을 받는다.

이 내용은 미에현건축사회의 Takahashi Toru 회장이 발표하였다.



김정주 제공건축 대표의 발표 모습 I

김정주 제공건축 대표의 발표 모습 II

나) 한국 –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송파 도시디자인'

최근 한국, 특히 서울의 키워드인 '디자인' 과 새로 제정된 '경관법' 의 배경을 안고 발주된 송파구의 도시디자인 용역을 통하여 올림픽도시 송파가 역사문화도시로 거듭 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분석 하였다.

백제의 옛 수도로서 풍납토성, 몽촌토성 및 적석총 등의 역사유산을 갖고 우수한 환경조건을 가진 송파의 자원을 분석하고 정체성과 경쟁력을 정립하여 도시재생의 방향과 시범사업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각 디자인 분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김성민 국제위원이 발표하였다.

다) 중국– '푸저우 상팡퀴시앙 근린주구의 역사유산 보전'

역사도시 푸저우의 역사유산지역 2개소 중 하나인 상팡퀴시앙 지역은 40ha에 160여개의 역사적 건물과 특히 9개의 국가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중국의 도시 중 가장 중요한 보존지역이다.

푸저우는 송나라 때부터 중심지역이었으며 해외무역이 발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항구도시가 되어 특히 유럽과 문화를 교류하게 되었다. 상팡퀴시앙 지역은 송대에 건설되었으나 명청시대에 황금기를 맞았고 많은 중국의 역사적 인물들이 이곳에 집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회주의 시절에는 저택의 대부분이 관사 또는 일반용도로 사용되었고 1970년대 말에는 고밀도로 황폐화 되었다가 1990년에 시장경제가 도입되면서 이 지역이 재개발의 요충지가 되어 2개 블록이 철거되기도 하였으나, 역사유적 보전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 2005년까지 우수한 역사적 건물이 유적으로 지정되고 지역 전체가 역사보전지역으로 등재되게 되었다.

이 지역의 보전, 리노베이션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계획 및 설계작업의 내용을 이 작업의 책임자였던 칭화대 건축학과의 Zhang Jie 교수가 직접 발표하였다.

지속가능한 건축

지속가능한 사회는 자연의 생태와 균형을 이루면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곳이고 건축은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축을 젊은 건축사가 발표 하도록 하여 이를 상기시키도록 하였다.

가) 일본– 'PARAMODERN'

일본의 젊은 건축사로 Shuhei Endo씨가 'PARAMODERN'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으며 PARAMIDERN은 'MODERN의 가능한 대안' 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자신의 초기 작품 SPRINGTECTURE H, SPRINGTECTURE B에서는 골철판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고, 그 이후의 BUBBLETECTURE H에서 보이는 자유곡면의 건축이 발전하여 실내 테니스장이면서 재난 시 피난처로 활용되는 SLOWTECTURE M에 와서는 상당한 완성도를 보여 주고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요소를

회의록에 서명중인 중 · 일 · 한 대표, 맨 오른쪽은 김만성 대한건축사협회 고문

회의 종료 후 단상앞에서
왼쪽부터 김정주 제공건축 대표, 오운동 고문, 한명수 협회장, 김만성 고문, 김영수 고문, 김성민 위원(필자)

건축과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건축에 대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최근의 GUANGZH CULTURE CENTER에서는 대규모 상업시설에 적용된 자신의 건축언어를 보여 주고 있다.

나) 한국- 'ACTION AND REACTION'

한국의 젊은 건축사로 제공건축의 김정주씨가 현대 한국 건축의 배경이 변화무쌍하고 다양하여 건축사가 자신의 형태와 양식에 집중하기 보다는 역동적인 도시 환경에 뛰어들어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ACTION AND REACTION' 을 키워드로 자신의 건축 세계를 발표하였다.

제공건축 윤웅원씨와의 공동작업을 통하여 초기의 명동성당 100주년 기념관 현상설계안에서부터 명필름 사옥, 정릉동 빌딩과 최근 한강 고수부지와 보행로를 연결하는 보행공간 디자인에 이르기 까지 건축사의 다양한 디자인 가능성과 친환경적 태도에 많은 참석자들이 공감하고 격려해 주었다.

다) 중국- 'BEIJING OLYMPIC VENUES, SUSTAINABLE SPORTS BUILDING'

중국이 최근 개최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베이징 올림픽 시설을 소개하였으며 젊은 건축사로 중국국제설계고문유한회사의 Zheng Fang 총괄건축사가 발표하였다.

발표한 3개의 시설 중에서 첫 번째는 'WATER CUBE' 로 알려진 수영경기장으로서 외벽의 투명한 ETFE 풍선은 자연광과 태양열을 내부로 유입하고 그 반투명 패턴은 태양광 투과율을 조절하며 이중외벽의 사이를 환기시켜 여름철 열부하를 경감시킬 뿐 만 아니라 우수 재활용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또한 올림픽 기간 이후에는 임시 관람석을 철거하고 내부에 4층 규모의 시설이 들어서 장기적인 운영을 고려한 공공시설로 거듭나게 되었다.

두 번째는 '베이징 올림픽 그린 테니스 센터' 로서 12 조각으로 나눠진 관람석 사이를 개방시킨 디자인으로 자연 환기를 관람석과 코트로 유도하여 코트 표면 온도를 3°C 낮추는 효과를 거두었다.

세 번째는 '베이징 2008 랜드마크' 로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원래의 디자인 개념은 올림픽 기간 중에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설로서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여 우산처럼 접혀지고 펴질 수 있는 환경조형물의 계획안을 설명해 주었다.

회의록 작성 및 차기 개최지 안내

가) 회의록 작성

상기한 내용을 정리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며 추가된 내용으로는 일본 측의 제안으로 앞으로 APEC건축사와 상호인정에 대한 진행을 목적으로 각국의 정부 또는 정부기관의 1인을 중개자로서 지정하자고 하였으나 한국측은 정부의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여 가능한 경우에 정부측 중개자를 지정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국제적인 실무를 위한 핸드북 작성을 위하여 핸드북 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3년간 한중일 정기회의 1일 전에 핸드북 위원회가 모여서 토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핸드북 위원회의 대표자로 대한건축사협회 심재호 국제담당 이사를 지정하였다.

회의록 서명식에 있어서 일본은 일본건축사연합회 Watanabe Sadao 이사, 중국은 중국전국주책건축사관리위원회 Wang Suqing 회장 그리고 한국은 대한건축사협회 전임회장이신 김만성 고문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나) 차기 개최지 안내

차기 개최국인 중국의 중국전국주책건축사관리위원회 Wang Suqing 회장이 개최지로서 중국의 우루무치를 제안하였고 3국이 동의하여 제13회 중일한건축사연합회를 2009년 9월경에 우루무치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건축시찰

11월 19일에는 일본 측의 안내로 오전에는 이세신궁의 외궁과 내궁을 방문하고 담당자의 설명을 들었으며 내궁 앞의 오하라이마치의 도시재생 사례를 시찰하였다. 오후에는 오하라이마치를 개별적으로 시찰한 후 신궁박물관을 방문하여 이세신궁의 역사와 관련 자료를 볼 기회를 가졌다.

이세신궁

약 1300년 전에 세워진 이세신궁은 내궁와 외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궁에는 황실가족의 조상신이자 일본인의 수호신인 아마테라스 오미가미신의 사당이 모셔져 있는 일본에서 가장 신성시 되고 있는 장소로서 많은 참배객이 방문하고 있다.

이세신궁은 20년을 주기로 새로 세워지고 있으며 이는 건설기법의 전수와 건물의 노후화에 대한 훌륭한 대책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해체된 신궁의 자재는 다른 건물이나 타 지역의 신사를 보수할 때 사용되고 있다.

첫 방문지인 외궁에서는 신궁이 새로 세워질 2013년을 목표로 목재의 보관, 분리 및 제작전 단계를 보여주는 공작소를 방문하여 담당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다음 방문지인 내궁은 신성한 사당이 있는 곳으로 일본 신사의 양식과 절차, 조경과 건축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세신궁 주변의 재생 사례

예로부터 이세신궁의 참배객으로 인하여 조성된 신궁 앞의 상업거리인 오하라이마치를 '나이구 오하라이마치 도시보전서비스기준'을 근간으로 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따라 조성하여 역사성을 간직한 거리로 탈바꿈하였고 거리 중간에 새로 건설된 일종의 소규모 테마파크인 오카게골목도 오하라이마치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맥락을 보여주도록 계획되어 주변지역에 활력을 주는 이세시의 관광자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맺는 말

한중일건축사협의회는 연례행사로서 특별한 준비나 목적 없이 관례적으로 참석하기 쉬운 행사이나 이번 회의를 통하여 몇 가지 느낀 점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좀 더 분명한 목적의식이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건축사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상호 인정이나 핸드북 작성 등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한중일협의회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더 뚜렷하고 현실적인 중장기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회의 종료 후 3개국 참가자 전원 기념촬영

둘째, 업무의 연속성이다.

지난 2007년 한중일협의회와 금번 2008년 일한중협의회에 모두 참석한 각국의 대표단은 일본은 8명, 중국은 4명인데 반하여 한국은 1명에 불과했다. 이런 국제회의가 장기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참가자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없다면 단순히 참가에 의의를 두는 정도 밖에 안 될 것이다.

셋째, 철저한 준비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협의회에 비하여 이번 일한중협의회는 모든 면에서 철저한 준비가 돋보인 행사였다. 단순히 주최국의 행사 준비 뿐 만이 아니라 모든 회의 내용에 있어서도 일본이 한국에 비하여 단연 견실하게 준비하였고 따라서 회의를 주도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세계무대의 중심이 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핵심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의 긴밀한 연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이 장래에 그 중심에 서려면 한중일건축사협의회를 토대로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김성민 위원